

6월 16일 **MILLET** 공동주최
엄청난 열정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

결산



16좌 전 등반 참여 박경진·박순금 부부

“함께 걷다보니 다시 신혼 됐네요”

“함들었지만 건강도 챙기고, 부부 급승(膝膝)도 좋아진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박경진(56)·박순금(55) 부부는 광주일보와 (주)밀레가 공동 주최한 ‘엄청난 열정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에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직접생활을 하는 박씨는 여리사리 시간을 쪼개 부인과 항상 배낭을 꾸려 산행하러 나왔다.
 부부는 지난해 5월 충남 계룡산에서 시작한 한국명산 16좌 대장정을 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으로 대둔산의 시원한 계곡물, 내장산의 붉은 단풍, 주왕산의 오밀조밀한 바위 등을 손꼽았다. 내장산의 경우 산행을 다녀온 이블날 대둔산이 전소했다는 뉴스를 듣고 가슴이 찢릴 내려왔다.
 특히 열 대장이 산행 출발전 합찬 목소리로 반박해서 감동했던 “좋은 산 왔으니 기(氣)를 들먹 달아 가시라~”는 멘트가 귀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내장산에서는 열 대장과 함께 들린 양아침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부부는 “산행을 하면서 평생서 사랑했던 서운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해결하곤 했다”며 “산행 초기에는 남편이 성명처럼 앞서갔지만 차츰 상대방의 발걸음을 맞춰서 동행하게 됐다. 부부가 함께하는 산행은 건강과 가족 득 많은 것을 얻어준다”고 말했다.
 부부는 ‘밀사모’(밀레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최현수) 회원이기도 하다. 밀레 광주 응봉점 고객을 중심으로 조직된 네이버 카페 ‘밀사모’ 회원 60여명은 유독 끈끈한 정(情)으로 맺어진 모임이다. 한국명산 16좌 완성이 끝났지만 다음달 중순 자체적으로 한라산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송기흥기자 song@kwangju.co.kr

My Limited Edition

우리 산천 사계와 16개월 ... 원정대는 행복했네

장정 16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지난해 5월 계룡산을 첫 등반으로 시작된 한국 명산 16좌 완성이 지난날 23일 국립공원 무등산 등반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0도를 웃도는 푼툰더위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열 정으로 뚝뚝 뚫린 호국립공원에 참여한 숫자가 1100명으로, 6회에 1000명을 넘어섰다. 등산 애호가들의 입소문을 타고 한국 명산 16좌 완성에 참여하려는 참가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호남지역의 등산 애호가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도 16좌의 산행에 붙어났다.

순	명산	행사일	참여자 수
1	계룡산	2012년 5월 25일(금)	500
2	주왕산	2012년 6월 22일(금)	550
3	번성국립공원	2012년 7월 20일(금)	500
4	춘천국립공원	2012년 8월 24일(금)	600
5	덕유산 국립공원	2012년 9월 25일(금)	800
6	내장산 국립공원	2012년 10월 26일(금)	1100
7	정읍대둔산	2012년 11월 23일(금)	1300
8	남해국립공원(특설 취소)	2012년 12월 28일(금)	0
9	평탄기아산	2013년 1월 25일(금)	1300
10	영양월출산	2013년 2월 15일(금)	1300
11	해남주왕산	2013년 3월 22일(금)	1400
12	진안마이산	2013년 4월 26일(금)	1600
13	합천황해산	2013년 5월 24일(금)	1700
14	대둔산	2013년 6월 21일(금)	2000
15	모악산	2013년 7월 25일(목)	2500
16	주왕산	2013년 8월 23일(금)	3000
		전체	22000

엄홍길 추천 가을 산행 필수 아이템

변화무쌍 날씨 방풍·방수는 필수 슬림 다운 재킷 챙기면 ‘센스쟁이’

산에 오를 때는 쌀쌀한 바람과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땀 흡수 능력과 통기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물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재킷과 신축성과 내구성도 좋은 겔라이프 산행에 가장 적합하다. 산행 시에 따라 온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땀이 식은 후 재킷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운 재킷은 골감미 방풍, 방수 기능을 갖춘 원단이나 체크하고, 얇은 슬림 다운 재킷을 택한다면 위에 방풍, 방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재킷을 덧입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변화무쌍한 날씨에 골감미 방풍, 방수 기능이 있는 겔라이프 산행에 가장 적합하고, 겔라이프는 매우 미끄러워 겨울의 실산보다도 위험할 수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와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산행 시에 올 때의 온도변화가 크고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해비 다운재킷보다는 슬림 다운 재킷이 낫다.

밀레의 ‘아스틴 슬림 다운재킷’은 충전제로 일반적인 덕다운(Duck Down)보다 공기층을 함유하는 능력이 우수해 구스다운에 비해서는 보온력을 자랑하는 프렌드 덕다운을 사용해 대단히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기 때문에 슬림 다운재킷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볼만한 제품이다.

또한 다운에 피톤치드(phytoncide)가 골감미 방풍 및 탈취, 알러지 방지에 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밖에 바람과 습기를 차단해주는 방풍 재킷으로는 엘리미트 ‘브로드피크 2 윈드재킷’이 있다.

밀레가 자체 개발한 방풍 소재 ‘윈드 엣지(Wind Edge)’를 사용, 바람과 비를 확실히 차단해 아웃도어 활동 중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아스틴 슬림 다운재킷
브로드피크 2 윈드재킷

16좌 산행 기획 밀레 박용학 상무

“호남 등반가들과 쌓은 친목 소중 소통으로 얻은 의견 제품에 반영”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MILLET)’ 마케팅본부 박용학 상무는 5일 “16개월이 걸린 한국명산 16좌 완성을 통해 호남지역의 고객들과의 친밀감이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소통을 통해 고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산행이었다”고 회고했다.

한국 명산 16좌 프로젝트를 기획한 박 상무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이 성공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호남지역 밀레 고객들의 산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이었다”며 “폭우와 폭설 등의 악천후 속에서도 열정 치레에 걸친 산행에 참여한 2만2000여 명의 고객들과 등반대장을 맡아준 엄홍길 대장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의 진 면목을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랐다”며 “호남 지역 고객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로, 충분히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박 상무는 또 “밀레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품 기획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을 이겨질 것”이라며 “이번 한국명산 16좌 완성에 걸맞은 호남지역 고객의 생각과 산을 향한 마음을 듣고, 그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가 한국 명산 16좌 프로젝트의 소통이라는 고객과의 소통이고, 그 소통을 통해 고객들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다시 제품생산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특히 특정지역에 맞는 지역 밀착형, 특정 고객에 맞는 고객 밀착형 마케팅을 추구한다”며 한국명산 16좌 프로젝트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밀레는 한국명산 16좌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고객과 함께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고객과 함께 우리나라 자연과 명승지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해피 트래킹’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의 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있는 ‘월소년 산악 체험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특히 커피 지킴이에서 추출한 원두 ‘에스카’를 사용한 ‘유니 티라초’를 출시해 ‘사랑&희망 나눔 캠페인’을 펼쳐 수익금의 일부를 엄홍길 유년 재단이 기부하고 있는 내일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있다.

/최경원기자 kki@kwangju.co.kr

TRUE PRODUCTS, REAL PEOPLE

밀레처럼 어려운 산은 없다
변덕도 심하고
함정도 많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심하라!
진심하라!

진심이 모른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